

제주경제의 국제화와 재외도민의 투자유치 여건조성

오 충 열*

I. 국제화의 추세와 당위성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하나의 유럽을 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해 오늘날 하나의 유럽공동체를 이룩했고, 세계의 경제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국제화는 경제의 활동이 한 나라에 머물던 시대로부터 다국적 기업의 시대, 혹은 세계의 시대로 가고 있음을 뜻한다. 지구촌이라는 말은 사회문화적 개념이지만 가장 실질적인 요소는 경제의 지구촌이란 말일 것이다. 무역 및 관세의 일반협정(GATT)은 경제의 다국화를 재촉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로부터 이제 서비스업 분야, 농산물분야, 유통분야를 당라하도록 우루과이 라운드가 움직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 이데올로기의 종식 및 공산주의의 몰락, 가속화되는 정보화와 통신망은 지구촌이란 말이 더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한국도 지나간 20년동안 수출주도경제의 성공을 가져왔고, 지금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외교 자체가 경제외교화 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의 한승수 주미대사가 경제외교를 위해 워싱턴에 와있음이 이것을 증명한다.

김영삼-클린턴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경제의 개방화를 더욱 재촉할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미 한국의 시장은 거의 개방되어 있고, 이제 금융시장의 개방, 농업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미국은 급진적인 완전개방을 요청하고 있고 한국은 농업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경우도 이 세계의 추세는 개방화에 있다. 개방화가 세계화를 세계화가 지구촌(국제화)를 의미한다.

개방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후진국들은 모두 개방을 두려워한다. 선진국들과 동등하게 경쟁한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자아낸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두려움을 떨치고 개방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성인 의식을 가져야 할 경제 성숙기에 와있다. 한국이 개방화에서 긍정적인 면을 취하듯 제주도도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취해야 할 것이다.

* 미국 OHS Tec. Corp. 대표

제주 경제는 크게 밀감과 관광경제다. 밀감경제는 미국 후로리다주 생산 밀감에 밀릴 가능성이 있고, 관광경제는 동남아 관광에 밀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제주특산 밀감은 어떻게 보면 후로리다주 생산 밀감과 다르고 제주관광자원은 동남아 관광자원의 특성과 다르다. 미국이 후로리다주 밀감을 한국에 팔면 한국은 제주산 밀감을 미국에 곱으로 팔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들이 동남아 관광으로 떠날 때 제주도는 동남아인들을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

제주경제의 국제화는 제주의 경제를 세계의 경제와 경쟁적 우위관계로 만드는 것이다. 가령 밀감은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공학 내지는 농업경제를 발전시키며 유통과정을 전문화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산 밀감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적인 상품이 되지 못할 때면 다른 업종 및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밀감이 아니면 무엇이 있을까? 옥돔이 될까? 흑돔이 될까(수산경제)?

제주경제의 사활은 명물을 상품화하고 꾸준히 연구개발하는데 있다. 더불어 제주경제의 국제화는 제주도가 세계의 어느나라 섬들과 경쟁해서 가장 훌륭한 상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서 가능하다. 필자는 밀감이 세계적인 상품이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하기위해 유전공학, 농업경제가 팀이되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밀감을 생산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관광자원은 아직 하와이처럼 개발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로 할 것이다. 사탕수수밭, 진주만습격(폭격), 원주민의 문화, 그것으로 하와이는 지상의 낙원이 되었다. 제주도의 밀감밭, 탐라고유의 역사와 전통, 유배지의 문화, 한라산의 대자연, ... 개발하면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다. 라스베가스(Las Vegas)가 모래밭이었다.

그곳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놓은 미국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II. 在外道民의 투자유치

해외에 살고있는 제주도민, 일본과 미국에 흩어져 살고있는 도민의 고향섬에 대한 투자유치 고취는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해외에 살고있는 한인들은 고향을 떠나서 더 고향을 사랑하게 되고 애국심, 애향심이 더욱 스미게 한다.

고향섬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제주도 지방 행정부가 먼저 구체화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밀감의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라던가, 관광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설/설비 투자라던가 등등... 만드시 필요한 투자의 대상을 알리고, 국내자본 동원계획을 밝히며 사업전망을 가능한 상세히 밝히고 나면 재외에 있는 동포들이 제주도 개발자금이라는 Mutual Fund를 만들 수 있다. 제주도 개발자금(Mutual Fund)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대표자들로 협의체와

이사회를 구성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며, 투자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도 명시해야 한다. Korea Fund처럼 세계국제금융시장인 뉴욕의 증권가에 등록할 수 있고 지역별, 나라별로 신용등급을 만들 수도 있으며 미국의 제주도개발자금 콘소시엄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필자가 살고있는 워싱턴 지역의 제주도 개발기금을 만들고, 뉴욕, 시카고, L. A., 아틀란타 등 대도시의 기금들이 모여져서 미국/제주도 기금을 이룰 수 있다. 일본은 일본대로 만들 수 있고, 제주도민의 기금으로 집합할 수 있다.

자본시장의 형성은 모든경제의 시발점일 것이다. 이것은 곧 금융시장의 생성과 일맥상통하는데 제주도를 국제금융거래의 거점을 확보하여 홍콩과 싱가포르의 금융시장에 버금가는 국제금융센터를 유치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을 중앙행정부의 협조아래 추진하는 것은 곧 이 중 제주경제효과와 (무공해 산업 및 자연관광객 창출) 재외도민의 자본투자유치 의욕을 높일 것이다.

필자는 재외 도민들을 국내에 있는 도민으로 그들의 투자를 국내인의 투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성될 때 더 큰 의미가 주어질 것이다. 이중국적자라는 비난을 받았던 새정부의 인물이 있었다. 미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제주도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은 제주도민이요, 한국인이다. 그들을 외국인으로, 또는 외국투자가로 동일시할 때 한국의, 제주도의 의식은 국제화, 세계화 추세를 거역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외도민의 투자를 시설투자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그들(재외도민)의 노후대책으로 가옥과 일정량의 대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그것은 제주도 지방정부 정책이 아니라 한국정부 정책이 되겠지만 지방자치 가 실시될 이후 제주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해외동포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숙제의 한면일 것이다. 2세대, 3세대가 되면 모국을 방문하려하지 영주귀국할 의향을 갖고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결국 이만 1세대에게 필요한 한국중앙정부의 조치는 "2중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해외동포들의 바램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는 투자이민이란 창구를 만들어 국적을 허용하며 50만불, 100만불 투자자에게 주는 특혜가 있다. 제주도, 한국도 제주경제, 한국경제를 위해 투자하는 해외동포, 재외도민에게 2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영주권만이라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제주도를 홍콩처럼 만드는 계획도 필요하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혹은 재외도민에게 3개월동안은 무비자 입국하게 할수 있는 과감한 시책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자원 동원에 면세 혜택이나 감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 여건조성은 물론 재외도민의 관심과 투자유치를 증대시킬 것이다.

결론으로 제주도는 제주가 필요한 중장기 경제전략을 먼저 제시하고, 해외도민들과 함께 범재외도민총합과 동시에 Cheju Fund; 제주도 개발기금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